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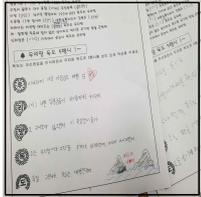
# 2019년 독도지킴이학교 활동 결과보고서

세곡중학교 세곡독수리반  
지도교사 : 이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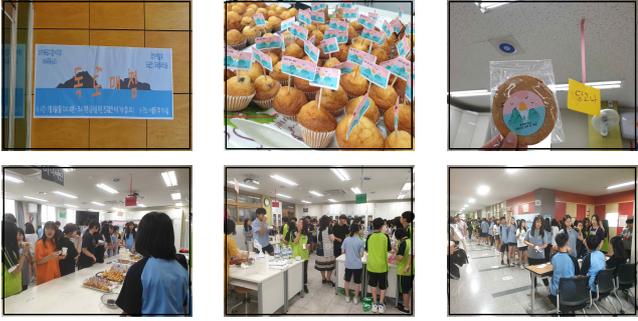
## 1. 지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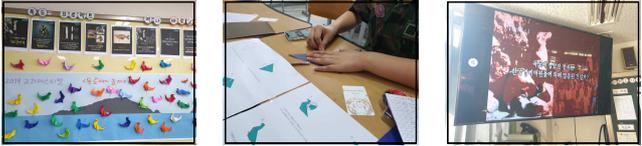
- '독수리(獨守摛)' 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우리 땅 독도(獨)를 지키고(守) 널리 알리는(摛) 활동을 실천함.
- 학생들 스스로 독도&역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역사 유적지 탐방(독도체험관, 통감부터, 남산 기억의 터, 송파소녀상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생생하게 느끼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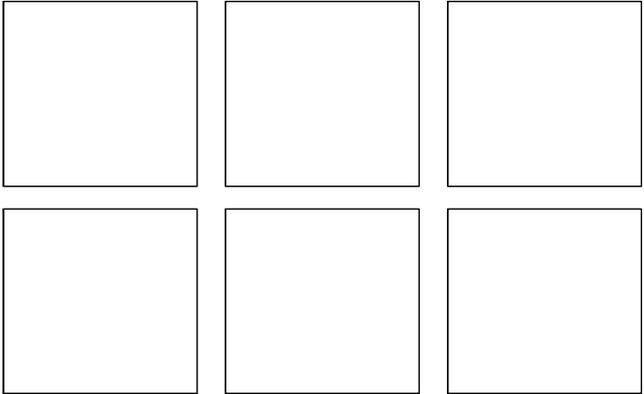
## 2. 활동 추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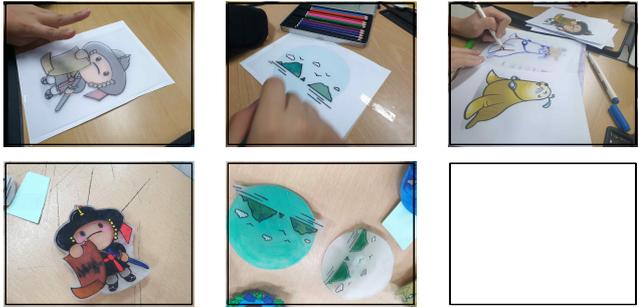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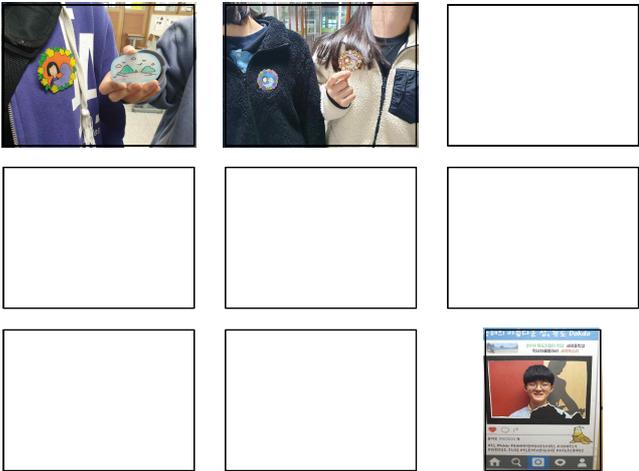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4	5	독도 영상 상영회	○	7교시 자율 시간을 이용하여 독도와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고 '우리땅독도'로 5행시 짓기, 독도퀴즈 등을 풀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실시함.
		독도퀴즈, 오행시 짓기	(신규)	  
		독도교실 만들기	(신규)	<p>본교 구조가 교과교실로 되어 있다는 특성을 살려 사회과 505호실을 독도교실로 꾸며 독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lt;세곡독수리&gt; 동아리실로 이용함. (5월에 독도지킴이 현판이 온 후에는 현판도 부착함.)</p>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4	12	발대식 캠페인	○	교장, 교감선생님과 함께 세곡독수리 발대식을 가진 후 독도교육주간 따뜻한 등교 맞이 행사를 진행함. 방송반의 협조를 얻어 '독도는 우리 땅' 등 독도 관련 노래들이 교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독도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과 독도메모지에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짐. 
	15	독도 신문 발행	○	<세곡 역사신문> 1호를 발행한 후 각 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19년 세곡독수리의 활동 계획을 안내함.
5	10	독도 신문 발행	○	<세곡 역사신문> 2호를 발행하여 러일전쟁 중 일제는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음을 알리고, 일본측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각 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함.
	31	캠페인	○	교내 금연교육주간에 진행된 교문맞이 캠페인에 독도의 자연 환경을 소개한 판넬을 제작하여 함께 참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1위가 담배라는 점을 알리며 아름다운 우리 바다 동해와 우리 섬 독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연하자는 생활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함. 
6	10	독도 신문 발행	○	<세곡 역사신문> 3호를 발행하여 독도의 생물과 자연에 대한 소식을 실어 각 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함.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6	21	캠페인 활동	○	5월 31일에 활동함
	28	독도 프로젝트	○	<p>동아리 담당 교사가 작년 여름(2018년 8월) 독도에 다녀와 찍은 사진으로 카드를 제작하여 학생,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며 핸드폰이나 지갑에 넣고 다니며 독도의 모습을 꺼내볼 수 있도록 함. 특히 교내 원어민 선생님(영어, 중국어)들께 카드를 드리며 독도에 대해 알리는 역할을 함.</p> 
7	2	협의회	(신규)	발대식 소식을 블로그에 올린 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받은 기프트콘으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으며 7월 활동들에 대해 점검하고 세부 계획과 역할 분담.
	8	독도상점	(신규)	<p>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독도상점을 열어서 떡볶이, 달고나, 아이스티, 아이스크림, 독도머핀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수익금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 위문품(모기약)을 구입하여 3월에 쓴 메시지와 함께 독도로 보냄.</p> 
	12	독도 프로젝트	○	<p>‘독도문방구’의 강치 캐릭터, 캘리그라피 작가 ‘달이’의 글씨를 재능기부 받아 부채를 제작하여 전교생과 주변 초등학교, 못골어린이도서관에 나눠줌.</p>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7	16	독도 프로젝트 (강치 접기, 영상 상영)	(신규)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영되었던 강치 관련 영상을 시청하면서 강치가 다시 독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독도강치를 색종이로 접어 독도에 붙여주는 활동을 진행함. 
		역사 프로젝트 (소녀상과 사진찍기)	(신규)	'소녀해방단'에서 지원해주신 소녀상 증강현실 카드로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 이벤트 진행. 참가 학생 중에서 추첨하여 소녀상 배지를 선물로 증정. 
		독도 프로젝트 (보물찾기)	○	독도 교실 곳곳에 숨겨진 독도보물을 찾는 활동을 진행함. 보물을 찾은 친구 중에서 추첨하여 독도 배지를 선물로 증정. 
	17	독도 신문 발행	○	<세곡 역사신문> 4호를 발행하여 7월에 있었던 세곡독수리의 다양한 활동 내용들을 소개하고 각반 홈페이지에 게재함.
18	역사탐방	×	삼척 이사부 공원 탐방을 갈 예정이었으나 탐방에 필요한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어 진행하지 못함. 내년엔 다시 방문할 예정.	
8	19	협의회	(신규)	2학기 활동 내용을 점검하고 2학기에 실천할 독도 알리기 프로젝트 신규 사업 아이템 토의.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굿즈로 거울을 제작하여 나누어줄 것을 계획하였었는데, 거울이 깨졌을 때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토의 끝에 실리콘 팔찌를 제작하기로 함. 캠페인이나 신문을 게시하는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2학기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10월 독도의 날 전까지 생각해보기로 함.

월	일	활 동 명 칭	추진	성 과
8	23	역사탐방	○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제작된 송파 소녀상을 찾아가 소녀상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한일 역사 현안과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자신과 친구들의 생각을 나눔. 
	29	독도 신문 발행	○	<세곡 역사신문> 5호를 발행하여 경술국치에 대한 계기교육을 하고 2학기 활동안내와 독도 퍼즐을 넣어 학생들이 풀어보도록 함.
	30	독도 프로젝트 (독도 영상 상영)	○	4월 5일, 7월 16일에 실시함.
9	9	독도신문 발행	○	독도가 표시된 지도와 문서들을 소개한 <세곡 역사신문> 6호를 발행하여 게시판과 각반 홈페이지에 부착함.
9	16	캠페인	○	독도 포스터를 그린 후 복도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였고, 우리땅 독도를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메모지에 써서 붙일 수 있도록 함. 
10	3	역사 탐방	○	여러 상황으로 상반기에 진행되지 못했던 역사 탐방을 전일제로 실시함. 오전에 남산 일대, 오후에 독도체험관과 정동 일대를 답사하며 독도와 한일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10	1 ~ 11	독도 프로젝트	(신규)	<p>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 독도교실에서 슈링클스 종이를 이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독도배지를 제작하여 가방, 교복 등에 부착해 보는 시간을 가짐.</p> 
	16	독도 신문 발행	○	<p>&lt;세곡 역사신문&gt; 7호를 발행하여 세곡독수리 현장 답사 소식과 독도가 일제의 강제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땅 독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함.</p>
	25	독도 프로젝트	×	<p>'독도의 날' 캘리그래피 손거울을 제작하여 나눔을 할 예정이었으나 거울 파손 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다른 활동(실리콘 팔찌 제작, 슈링클스로 독도배지 만들기)으로 대체함.</p>
	21 ~ 25	독도 프로젝트	(신규)	<p>독도의 날과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역사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도교실에서 점심시간에 독도명예주민증 만들기, 안중근 유묵 캘리그래피 엽서 쓰기, 독도퍼즐 맞추기, 슈링클스 배지 만들기 활동 진행.</p> 

월	일	활동명칭	추진	성과
10	25	독도 프로젝트	(신규)	<p>독도의 날과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여 교문맞이 캠페인 활동을 진행.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독도주권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독도의 날 팔찌를 제작하여 등교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줌.</p> 
	28	협의회	(신규)	<p>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독도지킴이로서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짐. 내년에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젝트로 역사알리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함.</p>

### 3. 우리 동아리 활동 자랑

#### 1. 활동 개요

- 명칭 : 세곡 독수리(獨守摛)  
(동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우리들)
- 목적 :
  - 가.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널리 알려 독도주권 의식을 공고히 함
  - 나. 독도, 역사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독도를 떠올리고 관심 갖게 함
  - 다. 역사 유적지 탐방을 통해 생생하게 역사를 느끼고 역사의식을 높여 나감
  - 라.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 일시 및 장소 : 4월~10월, 세곡중학교 교내외
- 참여자 : 세곡독수리, 세곡중학교 전교생과 교직원

#### 2. 활동 내용

- 독도 교실 운영
  - 본교는 모든 교실이 교과교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교의 특성을 살려 사회과 505호 교실을 독도 교실로 명명하고 독도지킴이 현판을 걸어 독도와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장소이자 세곡독수리 동아리실로 활용



- 독도 굿즈 제작
  - 일상 속에서도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기르고 독도를 떠올리며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도카드, 독도부채, 독도팔찌, 독도배지 등 다양한 굿즈를 만들어 나누는 활동을 진행. 특히 굿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녀해방단, 독도문방구, 캘리그래피 작가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함께하고 나누는 즐거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음.



○ 독도 캠페인 활동

- 독도, 역사와 관련한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 아침 등굣길 맞이 캠페인 활동을 실시해 세곡중학교 학생과 주변 시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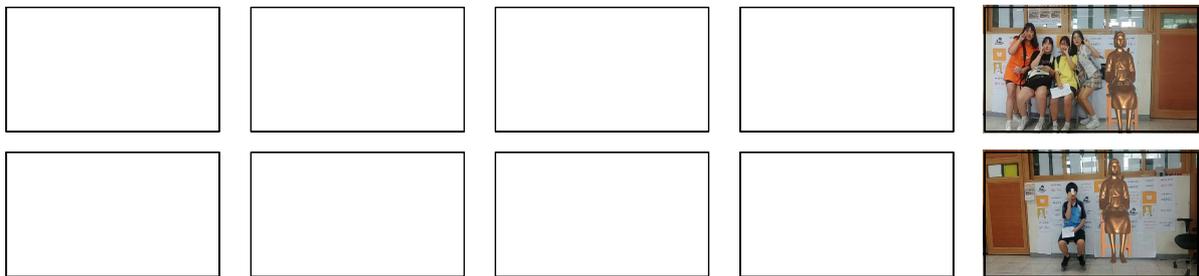
○ 독도 상점 운영

-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세곡독수리가 주관하고 학생생활부, 통합교육지원실, 교육플러스실이 주최한 독도 상점을 본교 가사실에서 운영함. 미술시간 1학년 학생들이 독도매점 메뉴판을 그려 붙이고, 선생님들과 세곡독수리 학생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세곡중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한 한여름 축제의 장이 됨. 음식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으로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보낼 위문품(모기약)을 구입해 택배로 전달함.



○ 독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학기 독도교육주간(4월), 1학기말 교내 교과페스티벌(7월), 2학기 독도의 날(10월) 등을 이용하여 각반 교실과 독도교실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독도경비대원에게 편지쓰기, 강치접기, 독도보물찾기, 슈링클스 배지만들기, 소녀상과 사진찍기, 독도 명예주민증만들기, 안중근 켈리그래피 엽서쓰기, 독도퍼즐맞추기, 독도퀴즈풀기, 독도 오행시, 독도영상상영회, 독도신문 발행 등 세곡독수리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교육할 수 있었음.



○ 역사탐방 실시

- 송파소녀상, 독도체험관, 중명전, 기억의 터, 한양공원, 안중근의사기념관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독도와 역사 관련 유적지를 탐방하며 생생하게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 또 독도체험관의 전시물을 둘러보며 독도지킴이로서 한일역사 문제 등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말하고 듣는 시간을 가짐.



3. 활동 성과

- <세곡독수리>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음. 독도지킴이학교로서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활동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음.
- <세곡독수리>의 활발한 활동으로 세곡중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세곡독수리>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를 갖는 학생들도 많아져서 분기별로 발행하려고 하였고 계획했던 역사신문을 다달이 발행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세곡독수리> 친구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게시하며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책임감이 증진될 수 있었음.
- 무엇보다 학교의 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을 갖고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학생들 중에서는 진로를 역사 관련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독도 관련 책을 찾거나 교과선생님들께 독도 관련 질문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줌. 독도 뿐 아니라 역사 전반(소녀상, 안중근, 전범기, 일본불매운동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 최북단에 있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주소는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번지 ] 이다.

♥ 신라의 [ **이사부** ]가 울릉도를 정복한 이래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의 국토로 인식되었고, 이는 고려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조선 건국 이후 울릉도 주민을 유치로 옮기는 [ **공도 정책** ](空島, 섬을 비우는 것)을 실시함에 따라 사람의 왕래는 많지 않았으나 나라나 개인이 편찬한 기록물에서 독도를 언급하고 있는 데에서 보듯이 우리의 영토로 인식하였다.



♥ 17세기 말엽 속종 때 [ **안유복** ]은 울릉도와 독도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와 있던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독도의 역사

♥ 19세기 중엽에 들어 일본 어민들의 불법 침입이 늘어나자 조선 정부는 일본에 서해를 보내 협의하는 한편 고종18년(1881)에는 공도 정책을 중단하고 1883년부터 육지 주민을 정식으로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여 개척을 모색하였다. 1899년 12월 울릉도 사찰사 우용정을 파견하여 그 후 울릉도 현지 사정을 보고 받았다.



♥ 1900년 10월 25일에는 [ **칙령 제41호** ]를 제정하여 10월 27일 관보에 실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분명히** 하였다.



독도의 역사

♥ 러일 전쟁 중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 **합의 의정서** ] 체결을 강요한 일본은 이를 근거로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였다.

♥ 일본의 어업가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후 독도의 [ **강치 권** ]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임을 이유로 들어 독도를 [ **시마네 현** ]에 편입하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은 여러 사료를 통해 보더라도 일본측의 잘못된 주장이며, 일본은 독도를 [ **불법** ]으로 편입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역사자들동아리 <세곡독수리>입니다. <세곡독수리>는 동해에 위치한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獨)를 지키고(守) 알리는(緝) 우리들이라는 의미로, 독도&역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천하며 세곡중학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독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거기 아세요? 우리 학교는 올해 2019독도지킴이학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곡독수리> 구성원 뿐 아니라 독도지킴이학교 세곡중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함께 독도와 역사에 관심 갖고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활동 재미있게 해 나가요.

세곡독수리를 소개합니다.



- ◆ **세곡 역사 신문 발행**
    - 4월, 6월, 9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세곡 역사 신문을 발행합니다. 세곡독수리의 활동 내용과 독도와 동해에 대한 정보, 역사 상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역사신문을 발행하여 각 반 홈페이지 및 학교게시판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취는 시간을 이용하여 오고가며 신문 읽으며 독도와 세곡독수리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
  - ◆ **아침교문맞이 캠페인 활동 실시**
    - 지난주 금요일 아침 교문에서 세곡독수리가 전개했던 캠페인 활동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독도와 동해,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알리는 캠페인 활동 전개 할 테니 지난 금요일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 (금요일에 쓴 메시지는 잘 정리하여 독도경비대원분들께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 **독도 프로젝트**
    -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활동은 세곡중학교에서만 끝내면 안 되겠죠?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제작하여(부채, 카드, 거울 등)의 깃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곡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나누며 우리 땅 독도의 주인인 우리들이 독도를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7월 교과페스티벌 때는 독도 보물찾기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세곡독수리의 활동 기대해주세요 ^^
  - ◆ **역사 탐방 실시**
    - 독도세원관, 삼척 이사부 사자공원 등 역사탐방을 통해 독도주권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탐방 내용과 느낀 점은 역사신문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세곡독수리 활동 계획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세곡독수리 활동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독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아리지도교사 이현주 선생님(505호 사회과 교실 또는 1층 학생생활부)께 문의해주세요.



**일본은 한반도 내에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맹루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맹루: 적이나 우방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놓은 지은 다목적

**독도 편입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독도는 동해에 나타나 러시아를 감시하기에 유리했고, 동해의 해상권을 경악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거든요.**

**1905년 2월 22일, 이렇게 일본은 영연이 주인 있는 땅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이라 규정하고,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몰래 일본의 땅으로 편입합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세력 다툼 속에서, 우리 땅 독도는 일본에 '불법' 편입된 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긴 그 날,**

**독도가 일본땅인 증거?!**

**하지만, 우리는 이 주장이 모두 '헛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본 땅이라는 주장**

**첫번째! 독도를 만진 이유였다? 신라시대 51 개소와 독도는 유래하고 표기되어 있으며 독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두번째!! 1905년 일본시마네현의 '독도는 원래 주인 없는 땅이었다' 그러나 먼저 발견한 일본의 것이다'라는 주장**

**두번째!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 1905년 당시 우리 땅은 일본에 부권을 할당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터무니없는 발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번째!!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제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규정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고 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

**세번째! 조항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이 조항은 한국에 대한 조약이라 함에서 일개인에서적으로 열거한 것일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독도의 진실**

**독도 옛 명칭**

운상도(전면도)	산봉도	가좌도	석도	독도
1454년(1693~1699년)	1478년	1794년	1900년	1909년
운상도(전면도) (속칭: 울릉도)	성룡섬 (유자루 보고서)	정주섬 (한양각 보고서)	고룡항 (한양각 보고서)	울릉도 군수 (1600년 보고서)

-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 512 유신국 목축
  - 1454 "세종실록" 기록
  - 1625 다케시마 (竹島, 울릉도) 도해(海圖) 연혁
  - 1693 연흥복 (吳興福) 일본 답지
  - 1694 울릉도 유문(遺文) 서명(署名)
  - 1695 일본 통사(通事) 답변
  - 1696 다케시마(울릉도) 도해(海圖) 연혁
  - 1698 5월 연흥복 (吳興福) 일본 도해
  - 1770 "동국문헌고" 기록
  - 1870 일일(日誌) 운상도(운상도) 서명(署名)
  - 1877 "태정(泰正) 일기"
  - 1900 칙령(勅令) 제41호 발표
  - 1905 시마네현(島根縣) 제1회 연례
  - 1906 3월 울릉도( 울릉도) 유문(遺文) 제3호
  - 1946 12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USCIB) 제1033호
  - 1952 12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USCIB) 제1033호
  -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에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제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독도)는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및 울릉도(독도)를 열거하고 있으며, 통 조항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사되지 않았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회부되자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일본 제국주에 의한 한국의 유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합일 의정서'와 '제1차 침략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의해 침탈되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인 주권은 한국 관할권이 인정된 이래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에 반하여, 한국 관할권이 인정된 이래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고등외교 사법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이 중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독도의 자연 경관**

**독도 식물**

- 황조창근(Fallopia sachalinensis)
- 장나리(Lilium lancifolium)
- 해국(Aster spathulifolius var. charai)
- 독도 사철나무(Luonymus japonica)

**독도 곤충**

- 작은멋쟁이나비(Cynthia cardui)
- 작은줄발먼지벌레(Stenolophus difficilis)
- 애망노민재(Geotomus pygmaeus)
- 애남쟁이말벌레(Cassida piperta)

**독도 조류**

- 괘일배기(Larus crassirostris)
- 산솔새(Phylloscopus coronatus)
- 새매(Accipiter nisus)
- 멋비둘기(Streptopelia orientalis)

# 세곡 역사 신문

제2019-3호 / 발행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발행인 : 세곡독수리

## 독도지킴이학교 명패가 도착했어요. ^^~



- 올해 우리 학교가 2019 독도지킴이학교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은 지난 1호 신문에 안 내해 드린 바가 있지요? ^^ 짜자잔~ 2019 독도지킴이학교 명패가 도착했어요~ 505호 독도교실 앞에 부착되어 내가 독도지킴이다! 내가 세곡독수리이다! 뽀내주고 있는 멋진 명패~^^ 쉬는 시간 이용해서 독도 교실 자주 방문해 주세요^^~^^

## 세곡독수리 활동 소개

###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약속, 금연

- 지난 5월 31일은 학생회와 학생부에서 주최한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그거 아세요? 요즘 해양 쓰레기와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담배라는 사실! 세곡중 학생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독도는 아름다운 우리 바다. 푸르고 맑은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해에는 다양한 해양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바다, 그리고 독도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실천! 그것은 바로 금연! <세곡독수리>도 독도의 자연환경을 소개하고 금연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함께 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독도와 동해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 독도 상식 넓히기

### 03. 서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서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돌굴 ]

[ 향토풍 ]

[ 현상굴 ]

[ 한반도바위 ]

[ 조끼바위 ]

[ 주민수소 ]

### 04. 동도에 가면 볼 수 있는!

동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현상굴 ]

[ 한반도바위 ]

[ 조끼바위 ]

[ 주민수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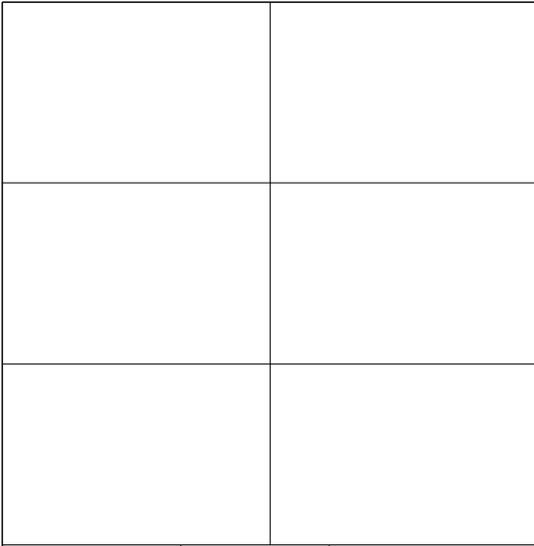
# 세곡 역사 신문

제2019-4호 / 발행일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발행인 : 세곡독수리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아침, 세곡중학교 정문 앞에서 <세곡독수리> 학생들이 제작한 독도부채를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7월 독도프로젝트의 주제인 '강치'에 대해 알리기 위해 독도문방구에서 제공받은 강치 디자인으로 부채를 만들어 세곡중학교와 자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세곡중학교 근처에 있는 꽃골어린이도서관에 비치하여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부채를 만들 때 강치 디자인과 캘리그래피 등 여러 작가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았는데, 독도를 지키고 알리는 활동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시원한 여름을 부탁해~ 독도 굿즈 <독도 부채> 나눔



# 세곡 역사 신문

제2019-4호 / 발행일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발행인 : 세곡독수리

7월 8일 월요일 세곡중학교 점심시간, 복도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무슨 줄일까요? 바로 독도 상점의 오픈을 기다리는 줄이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전 즐거움 추억을 남기고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세곡독수리>, 학생부, 교육협력실, 통합교육지원실(도움반)이 연합하여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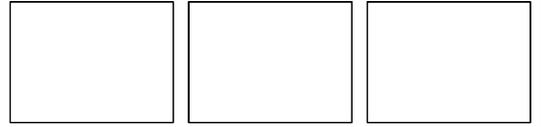


## 독도상점이 열렸어요

한국인의 매운 맛 떡볶이부터 동해의 시원함을 담은 아이스티와 아이스크림, 풍도와 서도를 형상화 한 독도버린, 추억의 달고나까지 다양한 먹거리들이 세곡중학교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곡독수리> 친구들도, 상점을 찾은 친구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도 상점을 운영한 후 407,500원의 수익금을 생겼습니다. 수익금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분들을 위한 간식 등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보니 독도에 모기가 많아서 경비대원분들이 고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기 나빠요ㅠ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모기약을 포장해 독도로 배당하였습니다.



# 세곡 역사 신문

제2019-4호 / 발행일 :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 발행인 : 세곡독수리

여름방학을 앞둔 화요일, 세곡중학교 교과페스티벌이 열렸다. <세곡독수리> 지도교사이자 역사선생님이신 이현주선생님은 독도교실에서 '독도가 놀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역사 체험 활동을 계획하였고, <세곡독수리>들이 도우미로서 함께 참여하였다.

### 보고싶다, 어느 돌아오려 독도의 눈썹이나 강치

영웅이 어릴때는 강치를 길로 이끌고 싶었다면 작은 아이는 어릴때 눈썹이 좋아 보인다.

### 독도교실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와!!

9999 독도교실 숨겨진 보물 찾기 활동은 9999 독도교실 숨겨진 보물 찾기 활동을 통해 독도를 찾아와!!

### 소년상과 사진 작가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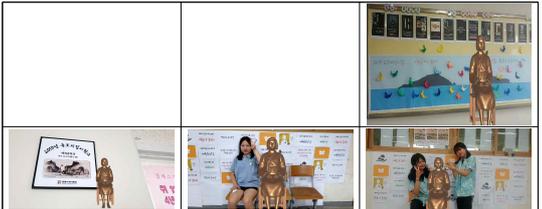
소년상 수상자들에게는 특별히 소년상 사진 작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10명씩을 초청하여 소년상 수상자를 초대합니다.

## 교과페스티벌 독도가 놀자~

일본 어부들의 무자비한 포획으로 결국 멸종하게 된 강치이지만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우리 땅 독도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치를 접어 독도에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교실 곳곳에 숨겨진 독도 보물을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는 독도와 소년상 배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교실 한편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소년해방전에서 지원받은 소년상 증정원칙카드로 소년상과 함께 사진을 찍는 활동도 하였다.



## 2학기에도 <세곡독수리>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세곡중학교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고 역사와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 계속 가져 주세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아베 정권의 망언에 화가 많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 다들 알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정검다리라 될 거예요. <세곡독수리>는 2학기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땅 독도와 동해, 역사에 대해 알리는 독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되세요~





[붙임2]

## 활동 지원비 정산서

세곡중학교 세곡독수리반  
지도 교사 : 이현주

구분	내역	계획금액(원)	집행금액(원)	비고
활동비	○ 독도소녀상 카드 제작	60,000	55,300	
	○ 독도 부채 제작	250,000	154,000	
	○ 보물찾기 상품(배지)	100,000	127,500	
	○ 보물찾기 상품(간식)	40,000	38,220	
	○ 보물찾기 라벨지	30,000	38,320	
	○ 독도의 날 거울 제작	500,000	0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물품 대체
	○ 독도의 날 행사 (배지 만들기)	0	328,700	
	○ 독도의 날 행사 (실리콘 팔찌)	0	230,830	
운영비	○ 협의회비	20,000	27,130	
총 계		1,000,000	1,000,000	잔액(원) 0 원

[별도 붙임] 관련 지출결의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출

※ 활동비는 교육 및 체험활동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함

(예. 강사 사례비, 강의실 임차비, 제본·인쇄비, 재료구입·제작비, 버스임차료, 견학관련 제비용, 간식비 등)

※ 운영비는 동아리 운영에 소요된 제비용을 말함 (예. 회의비, 참고문헌 구입비, 문구비, 시설·자재 이용료 등)

※ 운영비가 전체 지원비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됨

※ 내역은 활동 계획 및 내용과 일치해야 함. 단, 변경 진행 관련 내부결재 문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정산 서류에 포함 제출

※ 영수증의 경우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추후 재단 계좌로 반납(단, 잔액이 천원미만인 경우는 제외)